투자전략 | 2026.03.11

원자재 한눈에보는상상인자산전략

3 월 STEO: EIA 가 바라본 전쟁과 유가 영향

최예찬 | 경제/원자재/FX
02-3779-3519
yc.choi@sangsanginib.com

QR코드로 간편하게
상상인증권
투자전략팀 채널

EIA, 2026년 유가(Brent) 전망 $79/bbl로 상향

EIA는 3월 STEO(Short-Term Energy Outlook)에서 2026년 Brent 유가 전망을 전월(2월) 대비 배럴당 $21 상향한 $79/bbl로 제시했다. 이번 전망 상향 조정의 직접적 원인은 중동 군사행동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의 물리적 봉쇄가 아닌 사실상 폐쇄다. EIA는 이번 보고서에서 호르무즈 통행 급감으로 중동 원유 수출이 크게 제한되고 일부 생산국은 생산 자체를 감축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EIA 전망의 기본 가정은 봉쇄가 점진적으로 해소되고 중동 원유 생산이 회복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가는 향후 2개월 동안 배럴당 $95/bbl 이상 유지한 뒤, 3분기부터 $80/bbl 아래로 하락하고, 연말에는 $70/bbl 수준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다만 이번 전망은 중동 분쟁의 지속 기간과 호르무즈 통항 재개 시점에 크게 좌우된다. 호르무즈 물류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EIA의 기본 전망($79)보다 유가가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대로 갈등이 예상보다 빠르게 해소된다면 낮은 유가 경로에 다시 근접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현 시점의 유가 전망 불확실성 구간은 어느 때보다 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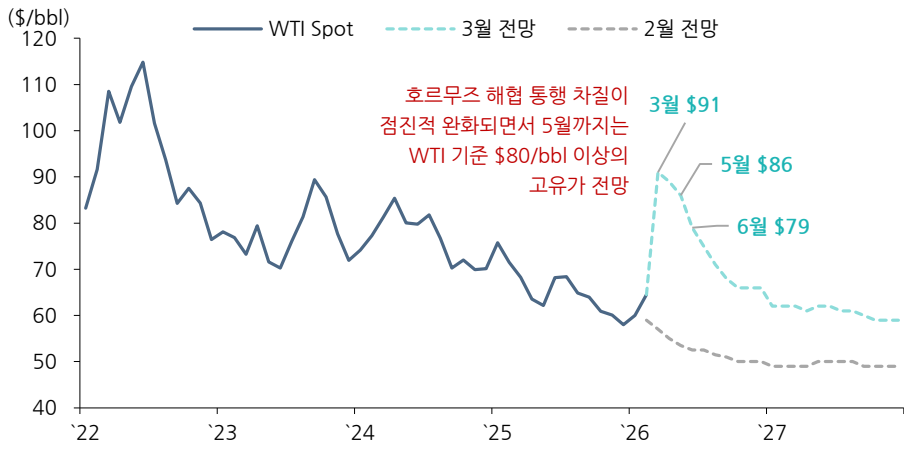
미국의 증산은 가능, 다만 2027년에 집중

공급 측면에서 주목할 변화는 미국 원유 생산 전망의 상향 조정이다. EIA는 2027년 미국 원유 생산량을 2월 대비 50만b/d 상향한 1,380만b/d로 제시했다. 고유가 환경이 미국 셰일업체들의 시추 유인을 높이고, 특히 Permian을 중심으로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유정 개발과 생산까지의 시차를 고려하여 2026년 생산량(1,360만b/d)은 전월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즉, 미국 공급 증가로 인한 단기 유가 안정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OPEC+가 4월부터 20.6만b/d 증산을 시작하기로 했지만, EIA는 예상되는 글로벌 원유 재고 누적을 감안할 때 2027년에는 OPEC+의 의미 있는 추가 증산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다만 이 역시 호르무즈 해협 주변 물류 차질의 지속 여부에 달려 있다.

전쟁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미국 천연가스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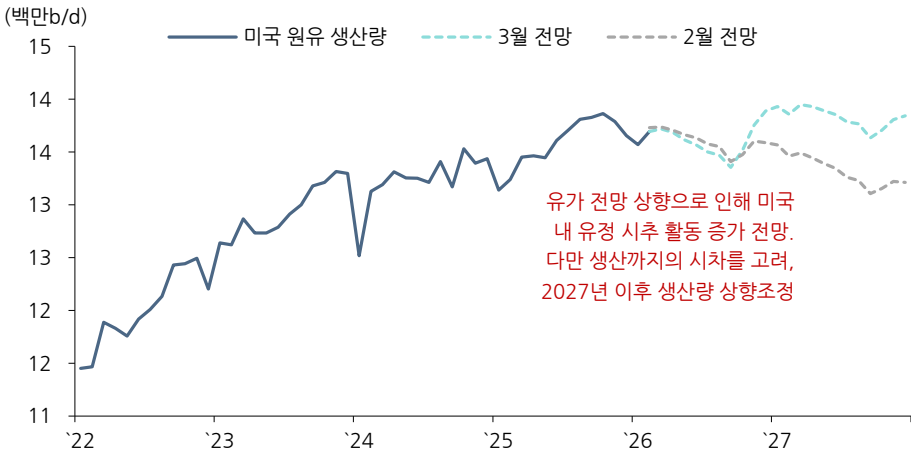
한편 천연가스는 유가와 정반대였다. 2월 STEO에서 EIA는 한파와 재고 감소를 반영해 헨리허브 천연가스 가격을 2026년 4.31달러, 2027년 4.38달러로 높게 봤지만, 3월 STEO에서는 온화한 기온과 예상보다 높은 재고를 반영해 각각 3.80달러, 3.90달러로 낮췄다.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 이유는 중동 분쟁 이전부터 LNG 수출 시설의 가동률이 이미 높은 수준이었기에 단기적으로 추가 수출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그림 1. WTI Spot 가격 및 EIA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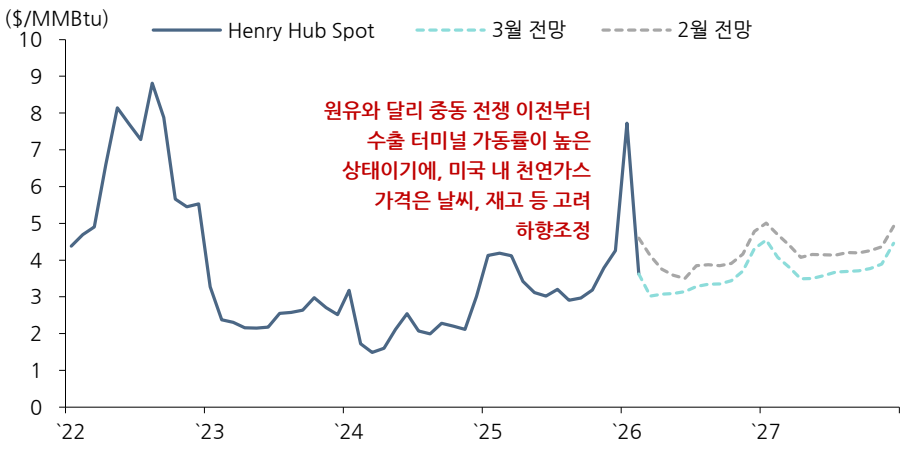
자료: EIA,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미국 원유 생산량 및 EIA 전망



자료: EIA,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미국 천연가스 현물 가격 및 EIA 전망



자료: EIA,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최예찬)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